



강진 최제영



곡성 김광휘



광양 김충진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여수 김석철

## 장성군, 거버넌스 도시 사회조사로 입증

### 군민 75.1% “지역축제 참여 경험”... ‘노란꽃잔치’ 지지도 특히 높아 ‘엘로우시티’ 인지도 95.9%...71% “장성군 생활여건 더 좋아질 것”

장성군이 ‘거버넌스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회조사에서 입증됐다. 거버넌스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이 대등한 관계 아래서 완벽하게 협력하는 체계를 뜻한다. 장성군은 장성에 거주하는 828가구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2017년 장성군 사회조사 결과 7일 공개했다. 사회조사는 일정한 사회나 집단의 관심사와 의식을 직접 조사 방식으로 파악하는 조사다.

장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회조사에서 군민의 75.1%가 지역축제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59.2%)보다 15.9%포인트나 상승한 것이다.

장성군은 이처럼 군민의 지역축제 참여율이 상승한 까닭은 장성군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컬러마케팅인 ‘엘로우시티 프로젝트’를 벌이며 추진한 거버넌스 행정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성군은 사회단체, 유관기관 기업체, 주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엘로우시티 프로젝트’를 비롯한 지역 정책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고 거버넌스 행정을 적극 구현하고 있다. 실제로 장성군은 ‘엘로우 감성디자인단’, ‘엘로우 식물은행’ 참여단, ‘꽃동산 조성 거버넌스’ 참여단, ‘엘로우시티 네이밍 선정단’ 등의 민간영역 거버넌스 조직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엘로우시

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참여율이 가장 높은 축제는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31.9%·이하 ‘노란꽃잔치’)였고, ‘홍길동 축제’(30.9%), ‘백양 단풍축제’(20.5%), ‘축령산 산소축제’(11.7%), ‘고로쇠 축제’(5.0%)가 그 뒤를 이었다. ‘노란꽃잔치’는 장성군이 대표적으로 육성해야 할 축제로도 꼽혔다. 응답자 37.3%가 ‘장성 황룡강 노란

꽃잔치’를 지역 대표 축제로 육성해야 한다고 답했다. ‘홍길동 축제’(29.6%), ‘백양 단풍축제’(22.9%), ‘축령산 산소축제’(9.0%), ‘고로쇠 축제’(1.0%)가 그 뒤를 이었다.

‘노란꽃잔치’가 이처럼 높은 지지를 받은 건 2016년과 지난해 열린 ‘노란꽃잔치’가 히트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서 ‘노란꽃잔치’를 낳은 ‘엘로우시티 프로젝트’가 95.9%라는 높은 인지도를 보인 것도 ‘노란꽃잔치’에 대한 지지도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거버넌스 행정이 빛을 발하면서 지역민의 소속감과 자부심이 높아졌다.

군정 만족도도 매우 우수했다. 응답자 94.1%가 군정에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분야별로는 복지(51.5%), 상수도(47.8%)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공공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81.8%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생활여건 향상에 대해 기대감도 높았다. 조사 대상자 71%가 향후 장성군 생활여건이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장성=반정모 기자

## 구례군,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교육

### 전문인력 경로당 등 방문 만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실시



구례군은 고령화 시대에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의 조기발견을 위해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과 예방교육을 지난 3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전문 인력이 직접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에게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실시 후 정밀 검진이 필요한 어르신은 보건의료원과 연계한 병원에 2차 검진을 의뢰하고 확진을 위한 혈액검사 등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대표적인 노년기 질환인 치매

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관리하고 치매 동반된 문제 증상을 개선할 경우 환자화 그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뿐 아니라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구례군은 지난해 11월 치매안심센터 인시개소 후 치매관리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치매 전문 인력 6명을 채용하여 ‘치매 걱정 없는 행복구례, 치매안심센터가 함께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치매 관리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 절감, 치매 환자화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지원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 함평군 학교면지사협, 기탁자에 감사서한문 발송

함평군 학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홍남희, 안상만)는 9일 지난해 지역특화사업 ‘사랑의 나눔장구’에 기탁한 기업체 대표와 주민 75명에게 감사서한문을 발송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누구나 편하게 각종 생필품을 기부하고

가져갈 수 있는 ‘사랑의 나눔장구’를 학교면사무소 내에 만들어 큰 호응을 얻었다.

관계 기업과 주민들이 33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했으며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287가구가 필요한 물품을 가져갔다. 이에 따라 선뜻 각종 물품

을 기부한 분들에게 서한문을 보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홍남희 위원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탁해준 분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깊은 감사사를 드린다”며 “어려울 때 공한 쪽도 내놓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듯이, 많은 주민들의 동참으로 소외되고 힘

든 주민들을 서로 힘닿는 대로 보살피는 한해를 보냈다”고 말했다.

안상만 학교면장은 “이웃사랑 분위기가 지역 전역으로 점차 확대돼, 더불어 사는 행복한 군민 실현의 튼튼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성원과 후원에 보답하고 정이 넘치는 화의 고장의 명맥을 계승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함평=김광춘 기자

## ‘신안 천도천색호’ 여행 상품 재개

신안군은 10일부터 세일요트 ‘신안 천도천색호’ 여행 상품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여행객의 안전과 쾌적한 여행을 위해 동절기 안전 점검과 시설 보수를 끝마치고 본격적으로 손님맞이한다.

신안군이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6년도에 신조한 쌍동선 형태의 세일 요트로 크기는 55피트, 정원 44명, 최고속력은 10노트이다.

지자체 중 처음으로 선보인 세일 요트 여행상품은 출시부터 전국적인 화제를 불러 일으켜 연일 매진

되는 기업을 토했다.

여행상품은 다도해를 조망할 수 있는 투어 상품과 가족 연인 등 각종 모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스테이 상품이 있다.

요금은 투어 기준으로 성인 32,000원, 스테이는 10인 기준 주중 360,000원, 주말 490,000원으로 전국 요트 상품 중에 가장 저렴한 요금을 유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요트 상품이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어 오는 4월경 54톤급 파워보트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고흥군 공직자, 관광해설사 교육 수료

고흥군 공직자들이 관광해설사로 활약할 준비를 마쳤다.

고흥관광 2천만시대 선포식을 이후 꾸준히 관광객이 증가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수요 증가에 대비해 군은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해 공직자 관광해설사 아카데미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1기 수료생인 31명의 공직자들이 7주간 해설이론과 실무, 안내 주요관광지 현장학습 및 실습 과정을 관광해설사 아카데미 과정을 마쳤다.

먼저 공직자 관광해설사들은 관

내 주요관광지를 순회하면서 현재 활발하게 활동 중인 민간 문화관광해설사로부터 해설을 듣고 해설기법과 각 관광지에 얽힌 스토리와 역사문화를 학습했다.

또한, 관광관련 전문가로부터 문화관광해설사로서의 기본소양과 실무교육을 받고 직접 안내 관광지에서 해설해보는 실습시간을 가졌다.

40시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공직자들은 주말, 공휴일, 근무시간 외에 필요시 배치되어 해설사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 영광군, 한방 골관절염 관리 교실 운영

### 오는 29일부터 3월12일까지 총 12회(매주 2회)

영광군은 오는 29일부터 3월12일까지 총 12회(매주 2회) 골관절염 예방을 위한 한의약 건강증진 교실을 의료취약지역인 염산면 복지회관·경로당 2개소에서 운영한다.

골관절염 교실 운영은 외부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겨울철이 되면 관절 내부의 인력이 올라가고 혈관과 근육이 수축되어, 작은 충격만으로도 큰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므로 사전 기초검사를 통해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후 개별 검진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

평가한다.

특히 한의약과 관련한 건강 상담, 이론교육, 이완 명상법, 기공체조, 식이요법과 손놀림 이용한 천연이끼 만들기 수업, 웃음치료, 노래교실 등 다양한 내용으로 운영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모든 질환이 발병하기 전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 개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

## 한국수력원자력이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를 이끌어 왔습니다  
내일의 에너지를 주도해 가겠습니다

- 안전한 대한민국 전기에너지로 **대일발전**
- 무심과 책임의 바탕을 이룬 **동력발전**
- 도심 속 조화로운 청정에너지로 **연료전지발전**
- 유기물의 생명을 이룬 **바이오메스빌리티(수전)**
- 미래에너지에서 24시간 운전가능한 **지열발전**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